

9/11/22

설교 제목: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고치심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요한복음 9 장 1-41 절

- (요 9:1)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 (요 9:2)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절관주** 행 28:4
- (요 9: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절관주** 요 11:4
- (요 9:4)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 (요 9: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 (요 9:6)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 (요 9:7)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 (요 9:8)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걸인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 (요 9:9)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 (요 9:10)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 (요 9:11)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 (요 9:12)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보게 된 맹인과 바리새인들

- (요 9:13)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 (요 9:14)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 (요 9:15)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 (요 9:16)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 (요 9:17)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 (요 9:18)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 (요 9:19)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 (요 9:20)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 (요 9:21)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 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 (요 9:22)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 (요 9:23)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 보소서 하였더라
- (요 9:24)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절관주** 요 9:16
- (요 9:25)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 (요 9:26)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 (요 9:27)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렸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 (요 9:28)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 (요 9:29)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 (요 9:30)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 (요 9:31)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 (요 9:32)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요 9:33)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요 9:34)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요 9:35)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요 9:36)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요 9: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요 9:38)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요 9:39)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요 9:40)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절관주** 롬 2:19

(요 9:4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문은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으로 본서에 기록된 8 가지 표적 (십자가
죽음과 부활 포함) 중 6 번째 표적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본인의 죄로 인함인지 부모의 죄로 인함인지를
물읍니다.

(요 9:1)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요 9:2)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고난 받는 사람들을 보면 가장 먼저 '죄'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죄를 지었기에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던 욥이 불행을 당하자 친구들이 찾아와 욥을 추궁하고 회개하라고 다그칩니다.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다고 항변해도 친구들은 욥의 말을 무시하고 집요하게 파고 듭니다.

욥의 친구들은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천상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자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이지 만약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는다면 그도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욥을 시험해 보라고 하셨고 사탄은 욥이 가진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빼앗아 버렸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을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젊은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철저히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는 비록 포로 신분이었지만 왕의 신임을 받게 되었고 그것을 시기한 바벨론 관리들이 왕으로 하여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우상에게 절을 하도록 강요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이외에 다른 것에 절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고 그에 대한 댓가로 평소 보다 칠 배나 뜨겁게 한 풀무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사자 굴에도 던져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당한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은 여러가지입니다.

물론 자신의 죄로 인해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지라도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탄의 역사로 인하여 올 수도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 훈련을 시키기 위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인해 고난 당할지라도 믿는 자들은 고난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믿음이 견고해지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갑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그가 낳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요 9: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요 9:4)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낳 때부터 맹인 된 자로부터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신 일이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일과 눈 뜨임을 받은 맹인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일입니다.
낮이란 예수님이 이땅에 계신 기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밝혀 주는 권능을 행하기에 앞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십니다.
맹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는 예수님에 대해 참된 지식을 가지도록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맹인에게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병을 고쳐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요 9: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것은 영적 의미까지 포함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고치시는 빛이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맹인되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영생의 빛이십니다.

그리고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요 9:6)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요 9:7)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나 손을 얹고 안수하는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여 맹인의 눈을 뜨게 하지 않으시고 왜 굳이 진흙에다 침을 개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게 하는 복잡하고 지저분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맹인의 눈을 고쳐 주셨을까요?

그것은 맹인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맹인이 말씀에 순종하여 두 눈에 진흙을 붙이고 실로암까지 가서 씻자 과연 눈이 밝아졌습니다. 맹인의 믿음과 순종이 그로 하여금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실 때마다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맹인을 전부터 보아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가 눈을 뜬 것을 보고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된 병자를 고쳐 주셨을 때처럼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치유해 준 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을 트집잡아 또 다시 논쟁을 벌였습니다.

(요 9:13)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요 9:14)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요 9:15)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요 9:16)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바리새인 중 어떤 이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하였고 어떤 이는 예수님이 사람이 행할 수 없는 표적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시 맹인 되었던 자를 불러 자초지종을 재차 묻고 예수는 죄인이니 예수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종용합니다.

(요 9:24)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요 9:25)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죄인으로 판정한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는 죄인은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할 수 없고 오직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조리있게 자신의 논리를 펴니다.

(요 9:30)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요 9:31)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요 9:32)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요 9:33)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요 9:34)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자를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 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신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이에 맹인이었던 자는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요 9:35)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요 9:36)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요 9: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요 9:38)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라고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요 9:39)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요 9:40)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요 9:4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 너희가 영적으로 맹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으면 죄가 없어졌을 터인데 영적으로 맹인이 아니라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날 때부터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죄인으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눈이 뜨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맹인이 아니고 본다고 자처했다면 이시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자신이 영적인 맹인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이 보고 찾아 오셔서 영적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영적 눈이 뜨이게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